

고용지표 위기 이전 수준 회복

군산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 결과... 심리안정부터 재취업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사업주의 고용유지 및 고용촉진 지원으로 경영안정 및 근로자 실직 예방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직자의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을 통해 갑작스런 실직에 따른 고용 불안 해소 및 재취업 기회 제공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창출 등 주력산업 붕괴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 대응 및 고용안정화를 도모했다.

시는 지난 2018년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초 지정된 뒤 3차례 연장을 통해 지난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 기간동안 군산고용복지센터를 운영하며 총 106억 7천만원의 국비를 투입해 취업상담 및 알선, 전직지원, 퇴직자 가정대상 심리상담, 직업교육을 통한 취업연계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했다.

시는 이 기간동안 노동시장 실태분석, 지원사업 추진효과 및 정책개선사항을 담은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최종 운영성과 및 평가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군산시 인구는 최근 5년간 만 65세 이상 인구는 19.8% 증가 만 15~29세 청년층 인구는 11.8%로 감소했다.

총생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은 제조업

(39.2%)이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기가 회복되면서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증가했으며 소규모 점포 공실률은 감소했다.

특히 새만금산업단지 투자유치 가속화 및 조선소 재가동 등으로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했다.

산업별 취업자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하반기 기준 13만1,200명으로 2018년 대비 6.5%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의 회복이 반영된 것으로 봤다.

/군산=이재춘기자



군산시는 김미정 부시장 주재로 소관부서 담당계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 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전의식 고취 자율안전점검 홍보

군산시, 2023 안전대 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보고회 개최

군산시는 김미정 부시장 주재로 소관부서 담당계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 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 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점검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이번 회의는 민관합동 점검팀의 안전점검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예산확

보 방안 등에 논의했으며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자율안전점검 홍보 현충도 확인했다.

시는 안전점검을 건축시설, 생활·여가시설, 환경시설, 보건복지시설 등 총 113개소에 대해 6월 16일까지 소관부서, 민관합동주체, 민간전문가 등 민관 합동으로 추진 중으로 현재 58개소(47%) 완료했다.

아울러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등을 발견할 경우 안전진단 전문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고 필요시 건축물 사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추진

군산시는 수산분야(해조류양식업, 수산물가공업) 생산량 집중시기(수확기)에 맞춰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전년도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계절근로(E-8) 체류 자격으로 최대 5개월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지난 3월부터 4월말까지 2개월간 김양식업 운영기구, 영어조합인 대상 고용유지 및 군산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분국가족 4촌 이내 추천을 통해 계절근로자 모집을 추진했다.

고용주-계절근로자 모집결과, 김양식어가 총 27개소, 근로희망 외국인은 작년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한 총 58명(베트남 38명, 필리핀 21명, 캄보디아 1명)이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법무부에 계절근로

자 배정을 신청한 상태이며, 오는 6월, 법무부 배정심사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확정된 계절근로자들은 근로계약 및 비자발급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 오는 9월 1차 입국계획으로 이후 고용주와 함께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지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작년 시범사업 추진 경험과 실제 어업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을 통해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기간인 5개월로는 실제 김양식 시기(8개월 소요)를 충족하기에 체류기간이 짧다는 의견을 반영, 올해부터 1차(9월) / 2차(12월)로 나누어 계절근로자 순차적 입국을 추진해 인력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기간 인력이 집중되는 어업에 적합한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수산업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시설지원 사업 추진

군산시가 전통시장 시설물 정비로 이용객과 상인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21년도 5월 개장한 대아전통시장 신규 주차장의 진입로를 추가 조성하는 대아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202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6억 3천만원을 투입, 기존 철도부지 2,100㎡에 주차장 진출입로와 이용객 안전을 위한 조경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5일장에 맞춰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고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 2011년도 준공한 공설시장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3억원을 투입, 시장 내부 무빙워크와 옥상 방수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전통시장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군산시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전통시장 농산물 원산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관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에 걸쳐 지역 내 전통시장 6곳(군산공설시장, 역전종합시장(새벽시장), 신영시장, 대아전통시장, 명산시장, 군산주공시장)의 농산물 노점 상인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산물이 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를 보호하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는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

/군산=이재춘기자

정헌을 시장,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위한 '강행군'

중앙부처 방문 예산확보 요청

정헌을 익산시장이 미래 혁신산업을 이끌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를 오가며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별 실랑이예산이 통보되어 예산확보를 위한 중요한 시기로 판단해 집중 방문에 나선 것이다.

17일 정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을 돌며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적극적인 예산 활동을 벌였다. 앞서 4월 말에는 세종시 현장에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기재부, 환경부 등을 찾아 국비 사업을 설명하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노영호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팀장에게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단순 산업단지가 아닌 산업



문화·관광 등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사업이 반드시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안용덕 방역정책국장과 홍기성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을 만나 국가 미

래발표 주력산업인 바이오 분야 육성을 위해 동물헬스케어 클러스터 구축 3단계 사업으로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이 정부 예산안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대학·대학원 학자금·생활비 대출이자 '전액 지원'

익산시가 지역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대출이자까지 확대해 전액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7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또는 생활비 대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해 2학기 학자금 대출에 대한 발생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5월 17일 기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휴학

생을 포함한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이다.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익산시청 홈페이지(<http://www.ksan.gok.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대출 정보, 주소(대학원) 재학 정보 등 확인을 거쳐 최종 선발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자금 대출 중 등

록금 뿐만 아니라 생활비 대출까지 이자 지원의 폭을 확대해 지역 대학원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만족도를 한층 높였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지원범위를 생활비 대출까지 확대해 지역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